



김영욱
(한국양돈개발원장)



“요즈음 세태(世態)와 양돈업계”

1. 「금상첨화(錦上添花)」 아닐까?

5월이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무슨 날’이라는 ‘날’들이 많기도 하다. 법의 날·석가탄신날·어린이날·어버이날·재향군인의 날·스승의 날·성년의 날·권농의 날 그리고 단오날, 모두 아홉날이다. 아마 몇 년 후에는 5월달이 ‘잔칫날’들로 꽉 차버릴 것 같다.

아예 5월 한 달은 「봄휴가달」로 지정해 버리면 어떨까? 정말 신바람나지 않을까? 그렇잖아도 행락철 수요증가로, 돈가(豚價)는 매년 좋은 5월인데 아마도 굉장할꺼다.

사실, 금년 5월 돈가(豚價)도 꽤 괜찮지만, 그렇게만 되면 금

상첨화(錦上添花) 아닐까?

2. 「오월동주(吳越同舟)」 나?

쾌락에 미쳐버린 ‘줄부’ 영동백화점 김사장은 여배우 몸사는데 수천만원씩 뿌리고, 쾌감(?)을 높인다고 마약마저 쳐먹다가 동지(同志)들이랑 쇠고랑쳤다.

제 돈 갖고 제 맘대로 쓰는 거야 누가 뭐랄 수도 없지만, 세상 참 더럽고 뽕꼴려 못 봐 주겠다.

「게으름뱅이 베짖이」는 맨날 맨날 노래나 부르며 놀아도 잘 살고, 죽자살자 땀흘리며 고생하는 「부지런한 개미」는 굶주리고 혈벗으니, 정말 뭐가 잘못되어도 더럽게 잘못된, 못 봐 줄 세상이다. 옛 얘기책처럼 눈보

라치는 추운 겨울이 되면 「베짖이」가 「개미」한테 구걸하러 올까? 천만에 만만에다. 모르긴 해도, 고급수입침대에서, 또 어느 골빈 여배우 끼고, 밍크이불 속에서 놀아 날 것이 뻔하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하늘 밑에, 같은 땅 밟고 살려니 율화통 터진다. 마음같아서야 강물이나 바다에 쳐넣으면 수질도 오염될 것 같으니, 똥물에 튀기거나 화장(火葬)시켜서, 고기밥이나 만들었으면 반 분이나 풀리겠다. 이게 정말 「없는 놈」 푸념일까?

「방랑시인 김삿갓」은 조상이 지은 죄도 부끄러워, 하늘 못 쳐다보고 평생을 삿갓쓰고 얼굴도 가린채 살다 갔는데, 요새는 큰 죄를 친 놈들일수록 더 큰소리 치면서 네 활개 활짝 편 채, 부귀영화마저 실컷 누리는 요

상야릇한 세상이다. 이런 못 돼 먹은 놈들 장난에 착한 사람들 특히, 땅파먹고 똥냄새만 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농사꾼들만 죽어나고 있다. 「필-벽」여사의 「대지(大地)」라는 책에서도 땅만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서 땀흘린만큼 보답하는 확실한 재산이며,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라 했는데, 도대체 이 땅 덕은 어떤 놈들이 보고 있는가? 어찌 이 원수 같은 놈들하고 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양돈가들 팔자도 기구하지 않는가?

옛날 말에 「오월동주(吳越同舟)」란 말이 있다. 원수가 되어 싸우는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강(江)을 건너기 위해서 한 배를 같이 탔다는 데서 유래된 중국의 고사성어(故事成語)다. 요즈음은 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유행이다.

지난날 우리나라 땅덩어리마저 집어 삼켰던 철천지 원수인 「왜놈들」과도 국교정상화란 명분과 국익(國益)을 앞세워 손잡은지는 이미 오래다. 또 그토록 미워했던 빨갱이들의 왕초나라인 「로스케」와 「피놈들」하고도 화친한다고 잘난 어른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반공교육」만 받아 온 내 머리통이 요새 자꾸만 가우똥 거린다.

어디 그 뿐인가?

「금강산공동개발」하신다고 현대그룹 정 회장께서 노구를 이끄시고 북한을 들락거리시는데, 지하에 계신 삼성그룹 고 이병철회장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잊지말자, 6, 25. 처부수자, 공산당!’ 매일 외쳐대던 지난날이 엇그제인데...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해 낸 「김일성 주석님(?)」이 개과천선을 한 모양이다.

어제의 적(敵)이 오늘에는 우군(友軍)이 되고, 적대국이 우방(友邦)으로 변해 버리니 정말 이 아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아니 할 수 있는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행동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이처럼 현실감있게 느껴지는 때는 없었다.

지난 '89년말까지 「5공비리 고스톱」치면서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으르렁대던 민정당과 민주당이 그리고 공화당까지 갑자기 민자당(民自黨)이란 이름을 내걸고 합당했다. 이것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우리 양돈업계도 세태(世態)마저 이러하니,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라 해도 세월 따라 유행따라 「오월동주(吳越同舟)」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도 「오월동주(吳越同舟)」하면 안될까?

3. 「동상이몽(同床異夢)」인가?

똑같이 한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다는 것을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고 말한다.

3당(三黨)을 합당한 후 민자당내의 거물급(巨物級) 정치인들이 같은 당사(黨舍)에 모여, 각기 서로 다른 야망(野望)의 꿈을 키우면서 실권장악을 위해 혈투를 벌이는 소리가, 최근 들어서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다.

「오월동주(吳越同舟)」했으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를 저어 강이나 건너 가야지, 같은 배 타고 강심(江心)에서 싸우고 있으니 배 뒤집힐까 걱정된다.

원수끼리 한자리에 모여 말로만 잘 해보자 하고, 뜻을 각기 달리하면, 어찌 행동이 통일될 수 있겠는가?

우리 양돈업계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될 지언정, 우선은 각 양돈업계 유관단체들만이라도, 한국양돈산업의 앞날을 생각해서, 5월을 맞아 「오월동주(吳越同舟)」라도 해 보자고 자리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지금 따뜻한 5월의 햇볕 속에서 일장춘몽(一場春夢)에 취해 잠꼬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연락처 (02) 566-1795~6>